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         |  |
|---------|--|
| 하나님 앞으로 | 시역과 행사 안내<br>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br>예배기도 / 김훈테 집사<br>주님 가르치신 기도   |
| 말씀과 결단  | 성경말씀<br>사도행전 1:1-13<br><b>성도에게 절실한 성령님의 능력</b><br>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br>결단의 찬송<br>찬송 183장 / 빈들에 마른 풀 같이<br>(통일찬송가 172장) |
| 헌신과 나눔  | 봉 헌 / 유동숙 집사, 최내권 집사<br>*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
| 삶과 세상으로 | * 세상 모든 민족이<br>* 축 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섰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등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 금요찬양예배

8:00 pm

기도 : 박진성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출애굽기 15:22-27  
 인생의 생사의 위기 앞에 선 나의 모습은?

## 묵상에세이

오순절 성령강림의 놀라운 사건을 묘사한 명화 중의 하나.  
 바로크 이미지의 특성을 통해 사도들과 마리아의 위에서 구름을 통해  
 나타난 빛으로 성령 감람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도들의 물러선 모습과 표정으로 권능과 놀라움의 감정이 나타난다.



"오순절 성령강림" Jean Restout II (1692-1768) / 루브르 박물관

### 환 주간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참다운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내게서 남을 걸루하는 모든 시기심과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들에 대한 모든 원망과,  
 나를 해하거나 피해를 입힌 자들에 대한 모든 독한 생각과  
 삶 가운데 있어 명백한 불의에 대한 모든 분노와,  
 미래에 대한 모든 어리석은 염려와,  
 과거에 대한 모든 무익한 후회를 소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자신과, 믿음의 형제들과, 그리고 당신과 더불어 화목케 하소서.  
 그렇게 함으로 오늘이 내게 평안한 안식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월리엄 바클레이 - 안식을 위한 기도

###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MISSION PASTOR 정홍렬 목사  
 CHILDREN'S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장영현 전도사  
 YOUTH MINISTER SAGAR 전도사



"그는 넘어지나 아군 영드러가지지 아니함은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시편 37편 24절

## 교회와 사역

### 느린 교회를 꿈꾸다 -교회를 일구는 세 가지 원칙 (C.크리스토퍼 스미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을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 뭘 뜻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돕는 열쇠이다. 하지만 이 가르침을 오늘 실제의 삶에서 적용할 길을 찾기는 쉽지않은 일이다.

#### 공동체를 일구는 원칙 1 : 뿌리 내리기

#### 공동체를 일구는 원칙 2 : 대화

#### 공동체를 일구는 원칙 3 : 일과 안식 사이의 리듬

우리를 그리스도 안의 삶으로 깊이 이끄는 세 번째 원칙은 ‘일과 안식 사이의 리듬’ 찾기였다. 기술 중심의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불편과 노력을 최소화하도록 만든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그분을 닮기 원한다면 부지런히 일하게 되지 않을까? 물론 일 걱정으로 소진되어서는 안 되겠다(마 6:25-33). 반대로 끊임없이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일을 멈추고, 쉬고, 놀고, 꿈꾸고, 함께 사색하는 안식의 빈자리가 필요하다.

개인주의 문화의 독특한 현상 하나는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이 대부분 개인이나 가족만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원래 안식일은 사회적 풍습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정짓게 만든 것도 바로 이 안식일 전통이다. 공동체로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대교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 전통적으로 안식일은 풍성한 세 끼 식사, 노래, 친구 및 가족과의 친교, 묵상, 그리고 회당에서 함께 모여 드리는 기도로 이루어졌다. 오늘날에도 안식일은 수많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축제의 날이며 한 주간의 여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잉글우드에서 공동의 일은 함께 나누는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는 어린이집, 공동체 개발 사업, 회계 사무실과 출판사업, 그리고 그 외의 비영리사업을 운영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여러 교회처럼 우리도 공동체로서 안식일을 함께 지키는게 진정 어떤 모습일지 상상조차도 하지 못하는 처지다.

바쁜 일상을 보내는 공동체 일원들은 자주 지치곤 한다. 그런 우리에게 안식일에 제일 가까운 것은 위에 소개한 일요일 저녁의 대화 모임일 것이다. 그 대화 모임을 통해 일을 멈추고 함께 사색하고, 서로 더 잘 알아가는 방법을 배운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그렇듯이 많은 멤버에게 이 시간은 일주일 중에서 가장 값진 순간이다. 이를 통해 안식일에 대한 이해도 계속 깊어질 거라고 믿는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교회에서 열심히 실행에 옮길 때 우리는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문으로 가는 길에 첫걸음을 던지게 된다(마 7:14).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를 위해 그려주신 온 인류와 창조물이 어우러지는 축복과 평화의 삶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다.

##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역 / 행사

6월은 재점검의 달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믿음생활, 기도생활을 새롭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1. 금주는 만남과 나눔의 주간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과 기도로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 팀사역 세미나가 12주과정으로 계속됩니다. (인도: 김윤경 사모)
3. 오늘 섬김위원회로 모입니다.
3. **방학:** 자녀들이 시간을 지혜롭고 활용하며, 방학을 보람 되게 보내도록 관심과 격려와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 자녀들의 여름방학을 맞으며, 토요일 오전 11:00에 모이던 WOW 모임도 방학합니다.
5. 유초등부 교육전도사/교사 청빙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6. 함께 기도할 전도 대상자를 나누기 원합니다.
7. 교우와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우 동정 여행/자녀 방문: 최선운/윤정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축복된 교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스헤미아/부흥강의들)를 위해

|                            |         |                     |                    |               |               |
|----------------------------|---------|---------------------|--------------------|---------------|---------------|
| 예배<br>섬김<br>이              | 주일예배기도  | 5/26<br>구은강집사       | 6/2<br>김훈태집사       | 6/9<br>고순제전도사 | 6/16<br>구 민집사 |
|                            | 금요일예배기도 | 5/31<br>오정은집사       | 6/7<br>박진성집사       | 6/14<br>정홍렬목사 | 6/21<br>최내권집사 |
| 주<br>일<br>안<br>내<br>위<br>원 | 주일헌금위원  | 5/26<br>최내권집사/유동숙집사 | 6/2<br>홍현근집사/오정은집사 | 6/9           | 6/16          |
|                            | 주일안내위원  | 5월<br>구 민집사         | 6월<br>김훈태집사        |               |               |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말 말씀요약) 오순절: 하나님 앞에 나와 / 민수기 28:28-31

부활주일 후, 7번째 주일이 오순절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관망하는 관중이 아닌,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 앞에 서는 절기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날을 정하시고, 오라고 명령하신다.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주일과 같은 특별한 날을 준비하셨고, 섬김의 교회를 세워주셨고, 주일 예배가 있도록 섭리하신다. 세상 살이에 지친 인생을 초청하신다. 부르실때,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풍성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 최고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인내와 헌신으로 충성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자.

성도에게 절실한 성령님의 능력 / 사도행전 1:7-14

왜 성령님이 오셨으며,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합니까?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둘째,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성령님을 받아야만 합니다. 다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온갖 시험을 이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됩니다.

성도에게 절실한 성령님의 능력 / 사도행전 1:7-14

예수님이 왜 성령님을 보내 주셨는지, 그리고 그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잠시 함께 하시지 않았을 때, 제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던 잠시 동안, 제자들은 패배자였고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영적 어린이와 같은 제자들을 예수님은 홀로 남겨 놓고 가지 않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이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한다고 저절로 성령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충만과 능력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충만한 성령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도와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제야 우리가 배운 말씀이 살아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 됩니다.

둘째, 성령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성령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에 성령님의 능력이 더해질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부활 신앙 위에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셋째, 성령충만과 성령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기도없이 성령충만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성령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성령충만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성령님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을 받을 때, 모든 것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네 영이 장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참되고 기쁘게하기를 간구하도라”

#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치유, 회복, 나눔

성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June 2, 2019

##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 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 재점검의 달 만남과 나눔의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